

조선전기 경기지역 부장(副葬) 도기(陶器)에 나타난 신구(新舊)요소의 공존양상*

한 혜 선**

목 차

- I. 머리말
- II. 조사된 분묘 현황
- III. 조선전기 경기지역 부장 도기의 종류
- IV. 부장 도기에 나타난 신구요소의 공존
- V. 맺음말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조선전기 분묘에서 출토된 도기를 대상으로 신구요소가 공존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선전기 분묘유적에서 도기가 부장된 분묘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부장된 도기 또한 분묘 1기당 1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장 도기를 기종별로 분류한 결과 호·병·장군·명기·기타로 구분되었으며, 이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종은 호와 병이다. 호는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단경호·파수단경호·장신호·소호 등으로 나누어지며, 단경호가 가장

* 이 논문은 2018년 6월 8일 중부고고학회에서 개최한 <중부지역 물질문화와 지역성>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문은 「조선전기 중부지역 분묘 부장 도기의 지역성과 특징」, 『중부지역 물질문화와 지역성』, 중부고고학회 2018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8, 178~198쪽에 수록하였다.

** 韓惠先, 연세대학교 사학과 강사

투고일 : 2018. 11. 11. 심사완료일 : 2018. 11. 29. 게재확정일 : 2018. 12. 20.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43>

많이 부장되었다. 병은 나팔입병·자라병·소병으로 구분되는데, 나팔입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단경호와 장신호는 고려후기부터 현재의 경기도와 충청도에 해당하는 중부지역에서 부장용으로 선호되었던 기종으로, 여전히 고려적 전통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동체에 여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파수단경호, 동체가 옆으로 누운 형태의 장군, 소형으로 제작한 부장용 도기제 명기는 조선이 들어선 이후 새롭게 부장되는 품목이다. 특히 도기제 명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수도 한양과 인접한 경기지역이 새로운 예제의 보급과 적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제도와 문물이 일시에 변화할 수는 없다. 왕조 변화와 무관하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 이전부터 지속되던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추진으로 인해 반영된 신요소가 일정기간 공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조선전기 경기지역 분묘의 부장품 중 도기를 꼽을 수 있다.

핵심어 | 조선전기, 경기, 분묘, 부장품, 도기, 명기, 장군

I . 머리말

유교사회를 표방한 조선은 고려말에 유입된 『朱子家禮』를 토대로 건국 이후 국가 차원에서 유교적 예제를 시행할 것을 강제하였다.¹⁾ 특히 ‘冠婚喪祭’ 중 상장례는 유교사회의 핵심 이념인 효가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유교적 상장례의 제도화가 꾸준히 추진되었다.²⁾ 기본적으로 『주자가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葬法은 무덤에 灰를 사용하여 축조하는 것이었다.³⁾ 묘제의 변화와 더불어 明器와 墓誌를 부장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1) 이석규, 「조선 전기 三年喪制의 확립과 民의 성장」, 『韓國史研究』 161, 2013, 87쪽.
 2) 정일영, 「조선시대 유교적 상장례 정착으로 보는 ‘유교화’ 과정: 연산군·중종대 상기(喪期)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0, 2017, 140쪽.
 3) 『朱子家禮』 卷4, 喪禮 治葬朱熹, 임민혁 역,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325-326쪽에서 재인용).

로써 추진되었다.

하지만 灰槨墓의 축조와 그에 따른 명기의 사용은 상당기간 동안 정착하지 못하였다.⁴⁾ 실제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묘제는 기존의 장법인 土壙墓이다. 조선시대 묘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따르면,⁵⁾ 분묘는 구조에 따라 크게 석축묘·토광묘·회곽묘·옹관묘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토광묘와 회곽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⁶⁾ 특히 토광묘는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묘제였다.⁷⁾ 공식적으로는 회곽묘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저변에서는 기존의 장법이었던 토광묘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⁸⁾ 정부의 정책이 비교적 빨리 적용되었던 수도 한양과 인접한 경기지역에서도 회곽묘가 본격적으로 저변화된 시점은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반 이후였고⁹⁾ 이 묘제가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되었던 것은 18세기 이후여서 조선전기부터 논의되었던 葬法의 변화는 생각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¹⁰⁾

4)申明鎬, 「조선시대 灰槨墓와 미라」, 『동북아문화연구』 13, 2007 ; 김영관·민소리, 「조선시대 회곽묘의 도입 배경과 양상」, 『한국사연구』 176, 2017. 회를 사용한 조선시대 분묘를 灰槨墓 또는 灰槨墓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회를 사용하여 곱을 제작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회곽묘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5) 박형순, 「朝鮮時代 무덤양식」, 『錦江考古』 2, 2005; 김정선, 「조선시대 토광묘의 편년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판석,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 연구」, 숭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이희인, 「고려~조선시대 무덤의 전개 양상」, 『고고학으로 본 조선시대 장송』, 제37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신승철, 「忠北地域 高麗~朝鮮初期 土壙墓 考察」, 공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김한상,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의 제(諸)양상 검토-사천 덕곡 구릉유적을 중심으로」, 『史學志』 43, 2011; 박춘규, 「고고학으로 본 전북지역 조선시대 土壙墓」,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등 참조.

6) 박형순, 위의 논문, 121쪽.

7) 이희인, 앞의 논문, 2009, 124쪽.

8) 국사편찬위원회 편,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68쪽.

9) 김현우, 「조선시대 회곽묘의 계층성과 확산: 서울·경기지역 대규모 분묘군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91, 2016, 100쪽.

묘제와 더불어 부장품의 종류와 구성에서도 자기접시와 발, 도기병, 청동합과 발, 청동손가락과 젓가락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모습이 상당부분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선전기 분묘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를 비롯한 자기류와 도기, 청동기류, 철제류, 구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¹¹⁾ 이 가운데 분청사기와 백자는 고려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자기로, 새 왕조의 출발과 더불어 확연히 조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장품이다. 반면에 陶器는 고려시대부터 지속적으로 부장되었던 기종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조선에 들어와 새롭게 등장하는 기종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기를 통해서 기존의 전통이 유지되는 한편 새로운 요소가 적용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제도와 문물이 일시에 변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¹²⁾ 왕조 변화와 무관하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한 왕조는 지향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이때 그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일정기간 공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조선전기 분묘 부장품 중 도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¹³⁾

이 논문에서는 경기지역에서 발굴조사로 확인된 분묘 부장용 도기를 중심

10) 이희인, 앞의 논문, 2009, 124쪽.

11) 현재 분묘 부장품 중에서 구체적인 연구는 자기, 도기, 청동손가락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조선전기 분묘 부장품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지영, 「조선전기 한양 서교지역의 분묘 출토 陶磁 연구」, 『한국중세사 연구』 36, 2013; 오영인, 「조선시대 분묘 內 매납 자기에 대한 一考-한양 공동묘역 출토 한 벌의 부장품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2, 2013; 정의도, 「고고자료로 본 조선시대의 젓가락 연구」, 『文物研究』 29, 2016; 정춘택, 「朝鮮 前期 墳墓 出土 陶器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研究」,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12) 한혜선, 「羅末麗初 陶器扁球瓶의 연원과 자기로의 변안」, 『한국중세고고학』 1, 2017a, 100쪽.

13) 이 글에서는 중부지역의 양상을 기준으로, 실물 크기의 자기·도기·銅器가 조합을 이루어 부장되었던 시기인 15~16세기를 조선전기로 설정하였다.

으로 조선전기에 여전히 고령적 요소가 지속되는 한편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나타난 신요소가 공존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경기지역의 분묘는 수도 한양과 바로 인접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예제가 비교적 빨리 적용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 또한 조선전기의 경기는 15세기 중반인 세종대에 오늘날과 유사한 영역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¹⁴⁾ 현재 경기지역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조선전기의 모습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조사된 분묘 현황

필자가 확인한 경기지역 조선전기 분묘유적 중 도기를 포함하고 있는 유적은 경기북부 19곳, 경기남부 43곳으로 모두 62곳이다.¹⁵⁾ 이 가운데 도기를 포함한 개별 분묘수는 경기북부 87기, 경기남부 150기로 모두 237기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분묘가 구제발굴로 조사된 것이어서 조선전기 분묘의 양상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분석대상으로 삼은 유구와 유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는

14) 심승구,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고려와 조선의 경기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8, 2015, 44쪽.

15) 경기도지역에서 확인된 조선전기 분묘유적의 수와 개별 분묘수는 매우 많다. 그러나 한 유적에서 확인되는 분묘의 숫자는 많지만 부장품이 포함된 분묘의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도기가 부장된 분묘는 더욱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기 및 동기와 달리 도기는 분묘 1기당 1점만 부장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한 유적에서 확인되는 토광묘의 숫자가 많은 것에 비해 부장품이 있는 유구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도기가 부장된 유구의 비율은 더 낮아진다. 예를 들어 김포 운양동Ⅱ유적의 경우 전체 86기의 토광묘 중 14기에서만 도기가 부장되고 있고, 광교신도시의 경우 99기의 토광묘 중에서 4기에만 도기가 출토되고 있다. 또한 안성 도기동유적에서는 토광묘 73기 중 도기가 포함된 토광묘는 1기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로 나누어 분묘의 조사현황과 출토된 도기, 공반유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반유물은 유적 전체를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도기와 같은 유구에서 공반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경기북부에서는 문산, 파주, 서울 은평구, 양주, 구리, 남양주 등에서 확인되었다.¹⁶⁾ 도기를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파주와 서울 은평진관동, 남양주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분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은평구 진관동의 경우 城底十里 禁葬제도를 적용했을 때 바로 경계에 해당하여, 피장자의 대부분이 한양도성 내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명기가 많이 부장된 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京畿文化財研究院, 『汶山 堂洞里 遺蹟』, 2009;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통일 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1992;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호암미술관, 『자유로 2단계 개설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3; 京畿文化財研究院, 『坡州 瓦洞里 I 遺蹟』, 2009; 京畿文化財研究院, 『坡州 瓦洞里 IV 遺蹟』, 2010; 京畿文化財研究院, 『坡州 東牌里 II 遺蹟』, 2010; 中央文化財研究院, 『坡州 雲井遺蹟 I』, 2011; 中央文化財研究院, 『坡州 雲井遺蹟 II』, 2011; 中央文化財研究院, 『恩平 津寬洞 墳墓群 II』, 2008; 中央文化財研究院, 『恩平 津寬洞 墳墓群 III』, 2009; 中央文化財研究院, 『恩平 津寬洞 墳墓群 IV』, 2009;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진관동 유적 II』, 2010;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진관동 유적 IV』, 2010; 한강문화재연구원, 『양주 구암리 유적』, 2010; 한강문화재연구원, 『구리 갈매동 유적』, 2016; 한백문화재연구원, 『남양주 별내유적 I』, 2012; 한백문화재연구원, 『남양주 별내유적 II』, 2012; 기호문화재연구원, 『남양주 지금동유적 2권』, 2017; 畿甸文化財研究院, 『南楊州 好坪·坪內 宅地開發地區內 文化遺蹟 試·發掘調査報告書 I』, 2001.

<표 1> 경기 북부지역 조선전기 도기 부장 분묘 현황

번호	유적명	도기 부장 분묘수	부장 도기의 종류와 수량	공반유물
1	문산 당동리 유적	토광묘2	단경호1, 장군2(나형2)	백자발, 백자접시, 중국청화백자인물문발, 청동합, 청동숟가락, 청동젓가락
2	통일동산 및 자유로(파주 성동리)	토광묘12	단경호1, 소병1, 나팔입병3(가형1, 다형2), 장군7(가형6, 나형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숟가락, 청동발, 구슬
3	자유로 2단계(파주 법흥리)	토광묘6	단경호5, 장군1(가형1)	백자발, 백자접시, 백자종지, 청동발, 청동숟가락, 동전, 철제가위
4	파주 외동리Ⅰ유적	토광묘11	단경호1, 소호1, 나팔입병6(나형4, 다형2), 장군5(가형4, 나형1)	백자발, 백자접시, 백자소호, 청동숟가락
5	파주 외동리Ⅳ유적	토광묘7	단경호3, 나팔입병3(다형3), 장군2(가형1, 나형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숟가락
6	파주 동패리Ⅱ유적	토광묘5	파수단경호1(가형1), 나팔입병1(다형1), 소병1, 장군2(가형2)	백자발, 백자잔, 백자접시, 청동숟가락, 구슬, 동전
7	파주 운정Ⅰ	토광묘5	나팔입병5(나형2, 다형3)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합, 동곳, 청동숟가락, 동전
8	파주 운정Ⅱ	토광묘5	단경호3, 나팔입병2(나형2)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숟가락, 청동젓가락
9	은평 진관동 분묘군Ⅱ	토광묘4	단경호1, 소호1, 나팔입병1(다형1), 명기6(호1, 반1, 잔2, 시루1, 동이1)	백자연적, 청동숟가락
10	은평 진관동 분묘군Ⅲ	토광묘3	장군2(가형1, 나형1), 명기6(뚜껍1, 정1, 향로1, 반1, 시루1, 부1)	백자접시
11	은평 진관동 분묘군Ⅳ	토광묘4	소호3, 명기8(시루2, 정2, 동이3, 뚜껍1)	분청사기고족배, 분청사기접시, 청동숟가락, 청동거울

12	서울 진관동유적II	토광묘4	단경호3, 명기2(정1, 호1)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구슬
13	서울 진관동유적IV	토광묘3	명기8(호5, 증2, 반1)	백자명기(원호2)
14	양주 구암리유적	토광묘1	단경호1	백자접시
15	구리 갈매동유적	토광묘4	파수단경호1(나형1), 소 병2, 장군1(나형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대 부발, 청동순가락, 비루
16	남양주 별내유적 I	토광묘3	소호2, 파수단경호1(가 형1)	분청사기발, 백자발, 백자 접시
17	남양주 별내유적II	토광묘4	소호1, 단경호2, 나팔입 병1(다형1)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청 동것가락, 구슬
18	남양주 지금동유적	토광묘2	장신호1, 단경호1	
19	남양주 호평·평 내유적	토광묘2	단경호1, 소호6	청동순가락

경기남부에서 최근까지 조사된 조선전기 분묘유적은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있다. 김포, 인천,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등에서 확인되었다. 17) 경기북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된 인천과 김포지역에

17) 中央文化財研究院, 『江華 倉後里遺蹟』, 2008; 中原文化財研究院, 『江華 玉林里遺蹟』, 201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仁川 元堂洞遺蹟 I』, 2007; 中央文化財研究院, 『仁川 雲西洞遺蹟 II』, 2011; 中央文化財研究院, 『仁川 中山洞遺蹟』, 2011; 한강문화재연구원, 『인천 경서동 유적』, 2012; 한강문화재연구원, 『인천 중산동 유적』, 2012; 한강문화재연구원, 『김포 운양동 유적 II』, 2013; 高麗文化財研究院, 『김포 양촌 유적』, 201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김포 신곡리·풍곡리 유적 I』, 201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김포 풍무동 유적』, 2013; 한울문화재연구원, 『부천 범박동유적』, 2011; 京畿文化財研究院, 『華城 峰潭 桐化里遺蹟』, 2007; 京畿文化財研究院, 『華城 南陽洞 遺蹟』, 2009; 한울문화재연구원, 『화성 울암리 산46-58번지유적』, 2014; 기호문화재연구원, 『華城 雙松里遺蹟』, 2012;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 청계리유적 V』, 2013; 한백문화재연구원, 『화성 남양동유적 II』, 2014; 高麗文化財研究院, 『화성 수화동 유적』, 2016; 中央文化財研究院, 『軍浦 渡馬橋洞遺蹟』, 2012; 中原文化財研究院, 『軍浦 堂洞遺蹟』, 2010; 高麗文化財研究院, 『안산 신길동 유적 I』, 2009; 한얼문화재연구원, 『안산 대부동동 유적』, 2013; 中央文化財研究院, 『平澤 玉吉里遺蹟』, 2008; 中央文化財研究院, 『平澤 소사별遺蹟』, 2008; 中央文化財研究院, 『平澤 道谷里·洪原里遺蹟』, 2008; 高麗文化財研究院, 『平澤 梁橋里 遺蹟』, 201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평택 수월암리 유적』, 2013;

대규모 분묘군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도기의 종류, 수량, 공반유물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경기 남부지역 조선전기 도기 부장 분묘 현황

번호	유적명	도기 부장 분묘수	부장 도기의 종류와 수량	공반유물
1	강화 창우리유적	토광묘1	단경호1	백자접시, 청동발, 청동순 가락
2	강화 옥림리유적	토광묘3	단경호1, 나팔입병1 (다형1), 장군1(가형1)	청동발, 청동순가락, 청동 순가락, 철제가위
3	인천 원당동유적 I	토광묘3	단경호1, 나팔입병2 (다형2)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발, 청동순가락
4	인천 운서동Ⅱ유적	토광묘14	단경호8, 파수단경호 3(가형1, 나형2), 나팔 입병2(다형2), 장군1 (가형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 가락, 청동발
5	인천 중산동유적(중앙)	토광묘20	단경호10, 파수단경호 3(가형2, 나형1), 나팔 입병7(가형1, 나형1, 다형5)	백자발, 백자접시, 백자소 호, 청동합, 청동발, 청동순 가락, 철제가위
6	인천 경서동유적	토광묘1	나팔입병1(나형1)	백자발, 청동순가락
7	인천 중산동유적(한강)	토광묘2	단경호1, 나팔입병1 (다형1)	백자접시, 백자잔, 청동대 부발, 청동순가락

中央文化財研究院, 『安城 萬井里 I 遺蹟』, 2008; 中央文化財研究院, 『安城 萬井里 II 遺蹟』, 2009; 中央文化財研究院, 『安城 道基洞遺蹟』, 2008;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암사동 62-1번지 유적』, 2010; 한백문화재연구원, 『서울 세곡동유적』, 2013; 한백문화재연구원, 『광교신도시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I』, 2011; 京畿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2005; 中央文化財研究院, 『龍仁 寶亭洞 442-1遺蹟』, 2011; 中央文化財研究院, 『龍仁 貢稅里遺蹟』, 2005; 中央文化財研究院, 『龍仁 杜倉里遺蹟』, 2006; 기호문화재연구원, 『龍仁 農書里 遺蹟』, 2009; 명지대학교박물관, 『龍仁 東栢洞 栢峴遺蹟』, 201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이천 수하리·도암리 유적』, 2012; 高麗文化財研究院, 『利川 增浦洞 遺蹟』, 2015.

8	김포 운양동유적Ⅱ	토광묘14	단경호4, 파수단경호1(다형1), 나팔입병4(나형1, 다형3), 소병1, 장군3(가형2, 나형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대부발, 청동순가락, 청동젓가락, 구슬
9	김포 양촌유적	토광묘10	단경호1, 나팔입병6(나형2, 다형4), 장군3(가형1, 나형2)	백자발, 백자접시, 백자잔, 청동대부발, 청동뚜껑, 청동순가락, 구슬
10	김포 신곡리·풍곡리유적Ⅰ	토광묘6	소호3, 단경호1, 나팔입병4(다형4), 장군1(나형1)	백자발, 백자접시, 백자종지, 청동합, 청동순가락
11	김포 풍무동유적	토광묘4	나팔입병4(다형4)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합, 청동순가락
12	부천 범박동유적	토광묘6	장신호3, 단경호3	백자발
13	군포 도마교동유적	토광묘3	나팔입병3(다형3)	백자발, 백자접시, 백자종지, 청동순가락
14	군포 당동유적	토광묘1	동이1	백자종지, 백자접시
15	안산 신길동유적	토광묘1	장군1(나형1)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16	안산 대부동동유적	토광묘3	단경호3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17	화성 봉담 동화리유적	토광묘2	장신호1, 장군1(가형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18	화성 남양동유적	토광묘5	나팔입병1(나형1), 장군4(가형4)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19	화성 쌍송리유적	토광묘6	단경호2, 파수단경호2(가형2), 소병1, 나팔입병2(나형2), 장군1(나형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발, 청동합, 청동접시, 청동순가락, 벼루
20	화성 울암리 산46-58번지유적	토광묘1	나팔입병1(다형1), 소호1	
21	화성 청계리유적Ⅴ	토광묘1	장군1(가형1)	백자발, 백자접시
22	화성 남양동유적Ⅱ	토광묘1	나팔입병1(나형)	백자발
23	화성 수화동유적	토광묘3	단경호1, 장신호1, 나팔입병2(다형2)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대부발, 청동순가락

조선전기 경기지역 부장(副葬) 도기(陶器)에 나타난 신구(新舊)요소의 공존양상

24	평택 소사별유적	토광묘1	명기1(정1)	분청사기병구연편, 백자종지, 청동순가락
25	평택 옥길리유적	토광묘1	단경호1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26	평택 도곡리유적	토광묘2	나팔입병2(가형1, 나형1)	백자소호, 백자접시, 청동합, 청동순가락
27	평택 양교리유적	토광묘1	단경호1	청동대부발, 청동순가락
28	평택 수월암리유적	토광묘3	단경호1, 장신호1, 나팔입병1(다형1)	백자발, 백자명기(입호2)
29	안성 만정리 I 유적	토광묘1	파수단경호1(가형1)	
30	안성 만정리 II 유적	토광묘5	단경호5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31	안성 도기동유적	토광묘1	소병1	분청사기발
32	서울 암사동 62-1번지유적	토광묘1	명기6(호1, 완2, 정1, 뚜껑1, 증1)	백자명기(병)
33	서울 세곡동유적	토광묘1	단경호1	청동순가락
34	광교신도시유적 I	토광묘4	단경호3, 나팔입병1(나형1)	
35	용인 동백리·중리유적	토광묘3	단경호2, 장신호1	분청사기접시,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합, 청동순가락, 청동젓가락
36	용인 보정리 소실유적	토광묘3	나팔입병2(나형2), 장군2(가형2)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합, 청동접시, 청동순가락
37	용인 보정동 442-1유적	토광묘3	장군3(가형3)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청동젓가락
38	용인 공세리유적	토광묘1	단경호1	백자발, 청동순가락
39	용인 두창리유적	토광묘1	장군1(가형1)	백자발
40	용인 농서리유적	토광묘3	나팔입병1(나형1), 장군2(나형2)	분청사기접시, 백자발, 청동대부발, 청동순가락
41	용인 동백동 백현유적	토광묘2	나팔입병1(나형1), 자라병1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가락
42	이천 증포동유적	토광묘1	나팔입병2(가형2)	
43	이천 수하리·도암리유적	토광묘1	단경호1	분청사기접시

앞의 <표 1, 2>에서 확인되듯이 경기지역 조선전기 분묘에서 도기와 공반되는 자기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있다. 이 가운데 분청사기는 출토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며, 대부분 태토빛음받침을 한 백자와 공반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조선전기 백자에 사용된 대표적인 번조법인 태토빛음받침은 그릇의 태토를 공기돌 모양으로 빚어 그릇 밑에 3~5개씩 받치는 것으로,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15~16세기 경기도 광주 관요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조질백자에 주로 사용한 번조방법이다.¹⁸⁾ 또한 일부 백자의 굽바닥에는 묵서명으로 명문이 쓰여 있기도 하다. 묵서명 백자는 대체로 15~16세기에 굽을 시유하지 않은 죽절굽의 포개구이한 백자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¹⁹⁾ 백자의 특징을 통해 공반된 도기 역시 그 시기가 15~16세기를 중심으로 한 조선전기임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조선전기 경기지역 부장 도기의 종류

조선전기 분묘의 부장품은 크게 자기·도기·銅器·철제품·유리·수정 등으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부장품들은 생전에 사용했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그릇인 ‘用器’의 범주에 해당한다.²⁰⁾ 특히 한양주변에서 확인되는 분묘에서는 자기만 단독으로 부장된 경우, 자기+청동기물(합, 발, 접시, 숟가락, 젓가락) 조합인 경우, 자기+기타(도기, 유리 혹은 수정 구슬, 철제가위)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²¹⁾ 이 때 자기는 분청사

18)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窯址地表調査報告書 解説篇』, 2000, 323~324쪽.

19) 박정민, 「漢陽都城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 墨書白瓷의 특징과 의미」, 『美術史學研究』 282, 2014, 62쪽.

20) 장남원, 「조선시대 喪葬 공예품의 의미와 구성: 서울·경기 지역 民墓 埋納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2010, 115쪽.

21) 오영인, 앞의 논문, 2013, 121쪽.

기와 백자로 구성되며, 두 종류가 공반되는 경우도 일부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분청사기보다는 백자가 부장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앞의 <표 1,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전기 경기지역의 분묘 부장 도기는 278점이며, 호·병·장군·명기·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필자가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양 지역의 도기 부장품의 기종 구성과 수량 등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체로 조선전기 한양도성을 둘러싼 경기지역은 남부와 북부 모두 도기부장에 있어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공반된 자기와 동기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는 형태에 따라 단경호, 파수호, 장신호, 소호로 나누어진다. 병은 나팔입병·소병·자라병이 있으며, 나팔입병은 세부적인 특징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장군과 명기도 여러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도기 가운데 호, 병, 장군이 비교적 많이 출토되었다. 분묘 부장 도기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의 <표 3>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조선전기 중부지역 분묘 부장 도기의 종류와 수량

기종 지역	호				병			장 군	명 기	기 타
	단경호	파수단경호	장신호	소호	나팔입병	소병	자라병			
경기북부	23	3	1	13	22	3	-	22	30	-
경기남부	52	10	7	4	52	2	1	25	7	동이 1
소계	75	13	8	17	74	5	1	47	37	1
합계	113				80			47	37	1

1. 호

호는 경기지역에서 도기 부장품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었던 기종으로, 전체

부장도기 중 41%를 차지한다. 호는 다시 형태와 크기에 따라 4개의 세부기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 4>와 같이 단경호·파수단경호·장신호·소호로 구분된다.

<표 4> 조선전기 중부지역 분묘 출토 호의 세부기종

세부기종	단경호	파수단경호	장신호	소호
사진				
출토유적	김포 양촌 4지점 내 구역 13호 토광묘	인천 중산동(중앙) 2-1 지역 1호 토광묘	남양주 지금동 35호 토광묘	서울 은평 진관동 IV-1구역 20호 토광묘

조선전기 분묘에서 출토되는 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것은 단경호이다.²²⁾ 전체 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6%로 매우 높은 편이다. 경기남부와 북부 관계없이 부장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기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단경호는 동최대경이 동체 중간에 있는 둥근 형태로, 동체에서 짧게 경부가 연결되고 구연은 거의 외반된 모양을 하고 있다. 높이는 20~25cm 내외이다. 단경호는 토광묘의 묘광 바닥에 요갱을 파고 그 안에 매납한 후 백자접시나 백자발을 뚜껑으로 덮은 상태로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²³⁾ 대표적인 예로 파주 운정Ⅱ유적 16지점 22호 토광묘, 화성 쌍송리

22) 장남원, 앞의 논문, 2010, 122쪽.

23) 이렇게 묘광 내 요갱에는 도기단경호 뿐만 아니라 분청사기호 또는 백자호와 같이 호류를 주로 매납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은평발굴 그 특별한 이야기』, 2009, 118쪽 참조.

32호 토광묘, 부천 범박동 2지역 38호 토광묘, 안성 만정리Ⅱ유적 2지점 5호 토광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파주 와동리Ⅳ유적 16지점 9호 토광묘, 인천 중산동(중앙)유적 3지역 4호 토광묘에서는 편방에 부장되었다. 단경호와 공반되는 유물은 주로 태토빛음반침을 한 백자발과 접시이며, 일부는 모래받침 백자와 공반되는 경우도 있다. 단경호는 고려후기부터 경기도지역 토광묘에 부장되었던 기종으로²⁴⁾ 조선전기 전체에 걸쳐 여전히 부장품 중 중요 품목이었다.

<표 5> 조선전기 중부지역 분묘 부장 파수단경호의 유형

유형	파수단경호 가형	파수단경호 나형	파수단경호 다형
사진			
출토 유적	인천 중산동(중앙) 2-1지역 1호 토광묘	구리 갈매동 1지점 14호 토광묘	김포 운양동Ⅱ 51-1호 토광묘

파수단경호는 13점이 확인되었는데, 기본적인 동체의 형태는 단경호와 유사하여 동최대경이 동체 중간이 있다. 구연은 내만하거나 구연 끝만 살짝 외반된 형태를 하고 있다. 파수는 동체 중간 양쪽에 달려 있는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손잡이는 가로띠형, 원통형, 원반형으로 구분된다(<표 5>). 가로띠 손잡이를 한 파수단경호 가형이 8점으로 가장 수량이 많고, 그 다음이 원통형 손잡이를 가진 파수단경호 나형이다.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인천 중산동유적 2-2지역 2호 토광묘의 편방에서

24) 한혜선, 「고려후기 분묘 출토 陶器의 지역적 차이와 그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45, 2016, 150쪽.

백자접시를 뚜껑으로 사용한 파수단경호 가형이 출토되었는데, 청동유개합과 청동순가락 및 철제가위와 공반되었다. 파수단경호 나형인 원통형 파수가 달린 호는 구리 갈매동 1지점 14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바 있다. 한편 파수단경호 다형에 해당하는 원반형 손잡이가 달린 것은 김포 운양동Ⅱ유적의 51-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이다. 파수단경호는 대체로 편방에서 백자발 또는 백자접시와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장신호는 동체 높이가 30cm 내외이고, 동체가 세장한 형태이다. 구연은 대부분 외반형이다. 이 기종은 부천 범박동, 화성 봉담 동화리, 화성 수화동, 평택 수월암리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부천 범박동에서 3점의 장신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유적의 토광묘에서는 분청사기가 다수 공반되었다. 또한 용인 동백리 중리 6호 토광묘에서도 분청사기접시가 공반된 예가 있다. 장신호는 부장 도기 가운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소호는 전체적인 형태는 단경호와 비슷하지만 높이가 15cm 이하로 작다. 은평 진관동유적 IV-1지구 223호 토광묘에서 소호 안에 조개껍질이 들어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렇게 조개를 넣은 것은 수의를 입히는 습의 절차가 끝날 무렵에 시신의 입안에 쌀, 조개, 옥 등을 넣어 주는 절차인 반함(飯含)과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²⁵⁾ 소호는 동시기 분청사기와 백자로 부장된 예가 있는데, 이 경우 동일한 형태의 도기 소호를 한 분묘안에 동시에 부장하지는 않았다. 즉 소호는 재질을 달리하여 한 분묘당 1점만 부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도기와 자기가 동일한 기형일 경우 서로 대체하여 사용되었던 면모를 보여준다.

호는 공반되는 자기의 양상과 경기지역 고려 후기 분묘 출토 도기와 비교하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단경호와 장신호는 고려 후기에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토광묘에 다수 부장된 품목으로, 이 중 단경호는 조선전기까지 이어지는 반면 장신호는 분청사기와 공반되는 사례는 확인되지만 백자와는 공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분묘 부장품으로는

25)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책, 2009, 120쪽.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파수단경호는 주로 백자와 공반되면서 편방에 부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장신호보다는 늦은 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하면 고려후기의 전통이 유지되는 단경호와 장신호가 확인되는 가운데 새롭게 파수단경호와 소호가 등장하여 일정기간 공존하였다.

2. 병

도기호 이외에도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분묘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기종으로 병을 들 수 있다. 병은 형태에 따라 나팔입병, 자라병, 소병으로 구분된다(<표 6>). 이 중에서 나팔입병이 전체 병의 출토수량 가운데 93%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전기 경기지역 부장용 도기병은 대부분 나팔입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6> 조선전기 중부지역 분묘 출토 병의 세부기종

세부 기종	나팔입병			자라병	소병
	가형	나형	다형		
사진					
출토 유적	인천 중산동 3지 역 13호 토광묘	김포 양촌 1지 점 B구역 8호 토광묘	강화 옥림리 1지 점 3호 토광묘	용인 동백동 백현 E구역 6호 토광묘	구리 갈매동 1지점 4호 토 광묘

나팔입병은 다시 세부형태에 따라 가형·나형·다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가형 5점, 나형 23점, 다형 46점이다. 다형이 전체

나팔입병의 62%를 차지하여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경기남부와 북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나팔입병 가형은 동최대경이 동체 하부에서 약간 위에 있는 형태로, 거의 수직으로 이어진 경부에 구연이 외반된 형태를 하고 있다. 가형은 주로 경기남부에서 확인되는데, 백자발 및 백자접시와 공반되었다. 공반된 백자는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번조법인 태토빛음반침이며, 굽바닥에 묵서명이 있기도 하다.

나팔입병 나형은 동최대경이 동체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나 저부 쪽으로 좁아드는 형태를 하고 있다. 구연은 넓게 벌어진 외반형이다. 파주 와동리 I 유적, 파주 운정 II 유적, 용인 보정리 소실유적, 김포 양촌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주로 청동순가락과 공반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나팔입병은 고려 후기 분묘에서부터 존재했던 기종이다.

나팔입병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나팔입병 다형이다. 다형은 저부와 접하는 부분이 동체에서 가장 지름이 넓은 형태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동체의 단면이 삼각형에 가깝다. 경부는 어깨에서 수직으로 길게 올라간 형태를 하고 있으며 구연은 외반되었다. 동체에 파상문이나 음각문이 시문되어 있거나 동체와 경부의 경계부분에 얇은 돌대가 돌아간다. 나팔입병 다형은 파주 동패리 II 유적 39지점 10호 토광묘에서 편방에서 묵서명 백자와 공반된 바 있으며, 화성 수화동 유적에서는 편방에서 출토되었다. 이 기종은 다른 유적에서도 편방에서 출토되는 예가 다수 확인되는 한편, 태토빛음반침의 백자접시 또는 백자발과 공반되었다. 공반된 백자의 굽바닥에는 묵서명이 쓰여 있는 것이 많다. 이외에 청동순가락과 청동합도 출토되었다.

나팔입병 이외에 높이 15cm 이하의 소병 몇 점과 자라병의 사례가 있다. 소병은 안성 도기동유적 C지구 50호 토광묘에서 분청사기발과 공반된 바 있다. 자라병은 반원형 형태의 동체에 한쪽 모서리에 구연이 부착된 형태로, 용인 동백동 백현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자라병이 분묘에서 출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3. 장군과 명기

장군은 액체를 저장·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로 알려져 있으며,²⁶⁾ 동체가 옆으로 넓게 퍼진 형태이다. 조선시대 문헌기록에서는 장군을 張本·長本·張盆·簞本이라고 불렀으며²⁷⁾ 일상생활용 뿐만 아니라 제사용과 의례용으로 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⁸⁾ 이 기종은 고려시대에는 거의 부장되지 않다가 조선전기에 새롭게 부장되는 품목이다. 또한 도기 외에도 분청사기와 백자라도 제작되었다.

장군은 동체가 옆으로 누운 모양으로, 측면의 한쪽은 편평하고 반대쪽은 대체로 둥글게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포탄과 유사한 형태이다. 구연은 동체의 중간 부분에 있으며, 주로 수평으로 벌어진 외반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장군은 동체의 가로 길이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7>).

가형은 동체의 길이가 20cm 이하로 짧은 유형으로, 일부는 동체의 측면 양쪽이 편평하게 제작된 것도 있다. 장군 나형은

<표 7> 조선전기 중부지역 분묘부장 장군의 유형

유형	장군 가형	장군 나형
사진		
출토 유적	용인 두창리 3호 토광묘	김포 운양동Ⅱ 34호 토광묘

26) 장군은 토기로는 백제에서 5세기경부터 사비시기가까지 제작된 기종으로, 금강 유역을 경계로 그 남쪽에서 분묘에 부장되었다(김윤정 외, 『한국도자사전』, 경인문화사, 2015, 398-399쪽 참조). 그러나 삼국시대의 장군이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연결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생산지와 소비지 모두에서 거의 출토되지 않는 기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시대 도기 장군은 분청사기와 백자장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7) 송윤정, 「화성 가재리 유적 출토 조선전기 도기장군의 제작기법」, 『야외고고학』 15, 2012, 211쪽.

28) 최남미, 「15세기 粉靑沙器장군의 용도와 특징」, 『한국학연구』 57, 2016, 339쪽.

전체적으로 동체의 길이가 가형에 비해 긴 형태로, 대체로 25cm 이상이다. 나형도 가형과 마찬가지로 한쪽 측면이 편평한 형태를 한 것도 있다. 분석결과 가형은 32점, 나형은 15점으로 크기가 작은 가형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장군은 태토빛음반침을 한 백자발 및 백자접시와 공반되는 경우가 많다.

장군은 파수단경호, 나팔입병 다형과 유사하게 주로 토광묘 벽면의 편방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파주 와동리 I 유적, 파주 동패리 II 유적, 화성 남양동유적을 비롯해 구리 갈매동유적 16호 토광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성 남양동유적의 경우 장군 4점이 모두 편방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편방이 경기지역에서 토광묘에 적극적으로 적용된 이후 장군이 부장품으로 다수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장군은 크기가 작은 가형이 분묘에 부장된 사례가 많은 점, 소비지인 한양도성 내 유적에서 도기제 장군이 그다지 많이 출토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특별히 부장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제 장군의 경우도 소비유적보다는 분묘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여 재질을 막론하고 장군이 특별히 부장용으로 선호되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부장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⁹⁾

명기는 시신과 함께 묻는 부장품으로 오로지 부장을 위해 특별히 작게 제작

29) 부장을 위해 특정 기종이 집중 제작되었거나 선호되었던 양상은 고려시대의 예이기는 하나 반구장경병이나 나팔입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반구장경병은 고려중기를 중심으로 자기, 동기, 도기의 다양한 재질로 제작된 기종으로 생활유적에서도 출토되지만 분묘에 집중 부장되었던 기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부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다. 김현아, 「고려시대 瓷器 盤口長頸瓶의 소비성격과 조형변천」, 『美術史學』 22, 2008, 116쪽. 또한 고려 후기 경상도지역 분묘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는 나팔입병(이 논문에서는 나팔입병 나형에 해당) 역시 부장품으로써의 역할이 부여된 기종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한혜선, 「高麗 時代 陶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55쪽. 아직까지 부장만을 위해 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른 기종에 비해 부장용으로 선호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한 기물이다. 유교적 장법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부장품으로 食器·樂器·什器·武器 등으로 구분되며, 『國朝五禮儀』에서는 신분에 따라 부장할 수 있는 명기의 수량을 규정하기도 하였다.³⁰⁾ 명기는 다양한 재질로 제작되었는데, 현재 조선시대 분묘에서 확인되는 것은 백자가 다수를 차지한다.

경기지역 일부 무덤에서 백자명기와 더불어 도기제 명기가 확인되기도 하는데 은평뉴타운, 서울 암사동과 같이 한양도성에서 매우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분묘 위주이다(<표 8>). 은평뉴타운의 경우 16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토광묘에서 연질의 도기로 된 명기가 출토되었다. 같은 유적 III-3구역 979호 토광묘, 2지구 C공구 IV-2구역 33호 토광묘, 3지구 D공구 1지점 268호 토광묘에서도 도기제 명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명기에는 술, 시루, 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2지구 C공구 IV-2구역 33호 토광묘의 도기 명기는 관 외부 바닥에서 노출되어 하관 후 충전하기 전에 부장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³¹⁾ 이외에 서울 암사동 62-1번지 유적에서도 백자명기와 함께 도기명기가 공반된 바 있다.

<표 8> 조선전기 중부지역 분묘부장 도기 명기 사례

사진			
출토 유적	은평뉴타운 2지구 C공구 IV-2구역 33호 토광묘	은평뉴타운 3지구 D공구 1지점 268호 토광묘	서울 암사동 62-1번지 1호 토광묘

30) 장남원, 앞의 논문, 2010, 111-112쪽.

31) 홍지운, 『朝鮮時代 墳墓에 남겨진 喪葬節次: 은평뉴타운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0, 2012, 230쪽.

IV. 부장 도기에 나타난 신구요소의 공존

1. 전통의 지속

고려말 『주자가례』가 유입된 이후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수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³²⁾ 고려말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색은 상례와 제례의 보급에 주력했고³³⁾ 정도전은 親迎과 家廟의 시행을 역설하고 그 자신이 부모의 삼년상을 시행하였다.³⁴⁾ 조선 건국 이후에는 정부차원에서 유교식의례의 시행을 강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³⁵⁾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일상적인 상·제례의 변화는 강력한 立法 및 教化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우 점진적으로 변화해갔다.³⁶⁾ 국가에서 고려 지배층의 장법이었던 화장을 줄이고 매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배층에게 棺槨을 제공하는 歸厚署를 설치할 정도로 상장제도의 개혁을 위해 조선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³⁷⁾ 여기에 상장제도의 변화보다는 제사에 대한 변혁에 더 역점을 두었던 것도 상장례의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졌던 요인이 되었다.³⁸⁾ 16세기 중종대에서도 사대부들이 규정대로 상례를 치르지 않는 것이 문제될 정도로³⁹⁾ 여전히 법제화와 실제 상장례 풍속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였다.

32)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동전東傳 판본版本 문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6, 2010, 186쪽.

33) 도현철, 『高麗末期 士大夫의 四禮 認識』, 『역사교육』 65, 1998, 64~65쪽.

34) 강문식,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그 성격』, 『역사비평』 122, 2018, 172쪽.

35) 崔在錫, 『朝鮮初期의 喪祭』, 『奎章閣』 7, 1983, 53쪽.

36) 이상균,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한국민족문화』 44, 2012, 180쪽.

37) 한희숙,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귀후서(歸厚署)』, 『朝鮮時代史學報』 31, 2004, 70쪽.

38) 崔在錫, 앞의 논문, 1983, 55쪽.

39) 『中宗實錄』 卷26, 중종11년 11월 6일 계미, “但我國士大夫之喪 亦未合禮 哭踊之數 飲食之節 期功之服 皆廢不講 而遽欲使賤隸 行古禮 非惟不能行 勢有所不可行也.”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인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장품으로 사용된 도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에 조성된 토광묘이지만 여기에 고려적 전통이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을 단경호와 장신호가 부장품으로 사용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두 기종은 고려 후기 양광도지역인 현재의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분묘 부장품으로 선호되었던 품목이다.⁴⁰⁾ 이와 더불어 동체 하부가 살짝 오므라들면서 저부와 연결되는 형태의 나팔입병 나형 역시 고려 후기의 무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종 중 하나이다. 즉 고려 후기에 부장용 도기로 사용되었던 단경호, 장신호, 나팔입병 나형이 조선전기의 어느 시점까지 부장품으로 꾸준히 사용된 사실이 발굴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것은 고려의 전통 중 일부가 조선전기까지 상당기간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경호와 장신호는 분묘뿐만 아니라 생활유적에서도 고려 후기에 이어 조선전기에 출토되고 있어 일부 도기 기종의 지속현상이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⁴¹⁾

상장례에 관련된 문화적 관습은 인간의 수많은 관습 중에서도 매우 느리게 변화하며 저항도 만만치 않다.⁴²⁾ 이러한 모습을 조선전기 경기지역 분묘에서 출토된 도기의 일부 기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묘제에서도 토광묘가 여전히 전체 조성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 또한 눈여겨볼 점이다. 토광묘는 고려시대부터 널리 활용된 장법의 하나로, 주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埋葬 및 風葬하는 방식을 반영한 것이다.⁴³⁾ 고려시대 관인층에서는 불교식 화장을 선호했으나⁴⁴⁾ 실제 고려시대 유적에서 확인되

40) 한혜선, 앞의 논문, 2016, 158~159쪽.

41) 한혜선, 「한양도성 내 조선전기 문화층 출토 매납도기의 종류와 특징」, 『陶藝研究』 26, 2017b, 81~86쪽.

42) 정일영, 앞의 논문, 2017, 169쪽.

43) 박진훈,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35, 2006, 153쪽.

44) 崔在錫, 앞의 논문, 1983, 49쪽; 韓희숙, 앞의 논문, 2004, 40쪽.

는 가장 일반적인 장법은 토광묘가 중심을 이루는 매장법이다. 무신집권기 이후에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을 거치며 관인층에서조차 화장 풍조가 거의 사라졌고 매장이 완전히 정착되어 토광묘가 급증하였다.⁴⁵⁾ 고려시대 토광묘에는 공예품인 청자·동기·도기가 세트를 이루어 부장되었으며,⁴⁶⁾ 이러한 세트구성은 조선전기까지도 상당히 유사하게 이어졌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분묘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던 도기 중 단경호, 장신호, 나팔입병 나형이 조선전기 분묘에서도 출토되었다. 자기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분청사기와 백자로 완전히 전환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도기는 일부이긴 하지만 고려의 전통이 여전히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2. 신요소의 등장

조선전기 경기지역 분묘 부장품으로 사용된 도기에는 고려와는 구분되면서 조선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기종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 도기제 명기, 나팔입병 다형, 장군, 파수단경호를 들 수 있다. 특히 도기제 명기의 부장은 경기지역이 조선전기 상장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⁴⁷⁾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도기제 명기는 확실히 한양 인근 지역에서 확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⁴⁸⁾ 이것은 당시 새로운 예제가 도입된 후 그것이 보급되는데 있어 지역 간에 시간차가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45) 박진훈, 「고려시대 官人層의 火葬: 墓誌銘 자료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229, 2016, 32쪽.

46) 李鍾政, 「高麗 墳墓 出土 陶磁 研究: 소비방식의 관점에서」, 『湖西史學』 46, 2007, 31쪽; 장남원, 「소비유적 출토 陶磁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茶禮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2011, 407쪽; 전경숙, 「경기지역 고려 분묘 조성의 확대와 사후관」, 『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116쪽.

47) 정춘택, 앞의 논문, 2017, 28쪽.

48) 정춘택의 연구에 따르면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지역에서는 도기제 명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춘택, 위의 논문, 2017, 54쪽 참조.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도기제 명기가 다소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당시 예학서의 보급과 적용이 지역에 따라 달랐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국가전례는 태종대부터 정비하기 시작하여 세종대에 본격적으로 정리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1451년(문종 1)에 편찬된 『世宗實錄』 五禮이다. 오래 중 상장례와 연관된 凶禮 서례에 喪服, 明器, 服玩 등의 항목이 있고 각 항목은 그림과 함께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⁴⁹⁾ 명기에는 총 30개의 기명별 도해와 명칭·재질·특징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고 재질은 자기·와기[도기]·죽기·목기·칠기로 구성되어 있다.⁵⁰⁾ 이 중에서 와기, 즉 도기로 만드는 것은 瓦鼎·瓦甗·瓦甗 등이 있다.⁵¹⁾ 이후 1474년에 완성된 『국조오례의』를 통해 國家典禮에서부터 私家禮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해 공인된 行禮의 표준 매뉴얼이 마련되었고⁵²⁾ 여기에서는 기존 『세종실록』 오례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⁵³⁾

조선초 명기에 대한 기록과 구체적인 사용 사례는 왕실 상장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종과 세종대의 여러 왕후의 장례 등에서 명기가 사용되었으며,⁵⁴⁾ 왕실을 비롯한 일부 지배 계층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⁵⁵⁾ 하지만 실제로 1454년에 사망한 溫寧君의 무덤에서 분청사기호와 접시 등 용기가 부장되고 있어⁵⁶⁾ 15세기 중반까지도 왕실에서조차 고려의 전통이

49) 이현진, 『조선 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41~42쪽.

50) 『世宗實錄』 五禮 凶禮序例 明器, 明器1.

51) 필자는 기존에 발표한 논문에서 도기가 와기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을 밝힌 바가 있다. 한혜선, 「문헌기록을 통해 본 瓦器·陶器·甗器의 用例와 상호관계」, 『역사와 담론』 64, 2012 참조.

52) 장동우,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2013, 114쪽.

53) 이현진, 앞의 책, 2017, 44쪽.

54) 송진욱, 「朝鮮王室의 明器 기록」, 『史學志』 53, 2016, 114~125쪽.

55) 전나나, 「조선 왕실 명기의 변천」, 『역사와 현실』 103, 2017, 234쪽.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실을 중심으로는 늦어도 15세기 후반부터는 전례서를 준용하여 명기를 부장하는 것이 정립되어 갔다. 또한 16세기 이후 성리학이 조선식으로 재해석되면서 분묘의 명기에 대해서도 더욱 격식을 갖추고 일정한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⁵⁷⁾

하지만 사대부 이하 계층이 부장했던 명기의 구성 및 기종의 조합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구체적인 기종의 도설은 찾기가 어렵다. 다만 실제 출토사례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⁵⁸⁾ 소형으로 제작된 명기는 주로 무덤의 측면 편방에 부장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출토사례를 통해 빨라도 16세기 후반 이후에나 편방에 명기를 부장하는 규정이 본격적으로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명기의 존재는 상장례에서 고려와 조선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와서도 왕실에서조차 본격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렸으며 이것이 다시 사대부층 이하로 확산되기까지도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명기가 출토되는 분묘는 그 조영시기가 대체로 16세기 후반 이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에서 확인되는 도기제 명기를 부장한 분묘의 조성시기는 16세기 후반 이후부터 부장품이 거의 없는 회곽묘가 보편화되는 17세기 중반까지로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명기 이외에 조선시대 이후 부장품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도기로 장군, 파수단경호, 나팔입병 다형, 소호를 들 수 있다. 장군은 고려후기까지는 거의 분묘에 부장되지 않았던 기종으로 조선에 들어서면서 전국 각지의 토광묘에

56) 최순우, 「溫寧君墓出土의 粉靑沙器」, 『美術資料』 6, 1962, 21쪽.

57) 장남원, 앞의 논문, 2010, 113쪽.

58) 최호림, 「우리나라 明器에 관한 一考察」, 『동아시아 문화연구』 14, 1988; 권소현, 「尹思愼 부부 합장묘 출토 16세기 후반 백자묘지와 명기일괄」, 『美術資料』 76, 2007; 이지현, 「朝鮮時代 明器의 연구: 白磁明器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서 확인되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편방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장군의 경우 25cm 이하 소형일 경우 장군의 용도와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작은 크기의 장군은 운반과 저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장으로 특별히 선호되었거나 부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파수단경호는 유적 출토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조선전기 백자와 공반되면서 편방에 부장되었다. 따라서 이 기종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새롭게 추가된 부장품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조선전기 한양도성 내 건물지에서도 다수 출토되는 점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⁵⁹⁾ 즉 단경호이지만 동체에 파수가 부착된 파수단경호가 파수가 부착되지 않은 단경호보다는 늦은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동체 하부가 가장 지름이 넓은 형태를 한 나팔입병 다형은 주로 편방에서 백자와 공반된 채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양상은 앞에서 살펴본 장군 및 파수단경호와 유사한 점이다. 소호는 고려시대 분묘에서는 보이지 않고 조선전기 경기지역 분묘 부장품으로 종종 확인되는 기종으로, 같은 유적에서 분청사기 또는 백자 소호가 부장된 사례가 많다.

조선에 들어와 새롭게 부장된 도기 가운데 파수단경호를 제외한 명기, 장군, 소호는 모두 같은 시기 자기로도 제작된 기종이다. 장군과 소호는 분청사기와 백자로 모두 제작되었으며, 명기는 주로 백자로 제작되었다. 특히 장군과 소호는 같은 유적에서 분묘 1기당 도기 또는 자기가 1점씩 개별 부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동일 기종이 다른 재질로 대체되어 분묘 1기당 기종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묘제와 관련하여 조선에 들어와서 새롭게 채용되는 요소는 편방이 설치된다는 점이다. 본래 편방은 『주자가례』에서부터 나타나는 시설로 여기에는 소형의 명기를 부장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그러나 회곽묘의 조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존의 묘제인 토광묘의 측면에 편방을 설치하여 그곳에 명기 대신

59) 한혜선, 앞의 논문, 2017b, 78~79쪽.

실물 크기의 용기를 넣었다. 이는 조선전기 국가전례서에서 제시한 바대로 회곽묘에 편방을 설치하여 명기를 부장하는 규정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규정대로 회곽묘에 편방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토광묘에 편방을 설치하고 여기에 부장품을 넣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기지역의 조선전기 분묘는 묘제에서 새로운 요소 중 하나인 편방 시설과 조선시대에 들어와 제작이 활발해진 장군, 파수단경호, 나팔입병 다형 등이 부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기종들은 대부분 백자발, 백자접시, 청동순가락과 공반되었으며, 15세기에 해당하는 분청사기와 같이 확인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분묘 부장품 도기 중에서도 중심시기가 약간 늦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지역 조선전기 분묘에서 확인되는 도기의 기종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고려적 요소와 새로운 조선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조선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제도가 저변화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부장용 도기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기지역에서 확인된 조선전기 분묘에서 출토된 도기를 대상으로 신규요소가 공존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선전기 분묘유적에서 도기가 부장된 분묘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부장된 도기 또한 분묘 1기당 1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장 도기를 기종별로 분류한 결과 호·병·장군·명기·기타로 구분되었으며, 이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종은 호와 병이다. 호는 세부적인 형태에 따라 단경호·파수단경호·장신호·소호 등으로 나누어지며, 단경

호가 가장 많이 부장되었다. 병은 나팔입병·자라병·소병으로 구분되는데, 나팔입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단경호와 장신호는 고려후기부터 현재의 경기도와 충청도에 해당하는 중부지역에서 부장용으로 선호되었던 기종으로, 여전히 고려적 전통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동체에 여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파수단경호, 동체가 옆으로 누운 형태의 장군, 소형으로 제작한 부장용 도기제 명기는 조선이 들어선 이후 새롭게 부장되는 품목이다. 특히 도기제 명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수도 한양과 인접한 경기지역이 새로운 예제의 보급과 적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제도와 문물이 일시에 변화할 수는 없다. 왕조 변화와 무관하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때 그 이전부터 지속되던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추진으로 인해 반영된 신요소가 일정기간 공존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조선전기 경기지역 분묘의 부장품 중 도기를 꼽을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 국사편찬위원회 편,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 서울역사박물관, 『은평발굴 그 특별한 이야기』, 2009.
- 이현진, 『조선 왕실의 상장례』, 신구문화사, 2017.
- 朱熹 지음·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 강문식, 「여말선초 성리학의 수용과 그 성격」, 『역사비평』 122, 2018.
- 권소현, 「尹思愼 부부 합장묘 출토 16세기 후반 백자묘지와 명기일괄」, 『美術資料』 76, 2007.
- 김경선, 「조선시대 토광묘의 편년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관·민소리, 「조선시대 회곽묘의 도입 배경과 양상」, 『한국사연구』 176, 2017.
- 김판서,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 연구」, 숭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한상, 「경남지역 조선시대 분묘의 제(諸)양상 검토: 사천 덕곡 구릉유적을 중심으로」, 『史學志』 43, 2011.
- 김현아, 「고려시대 瓷器盤口長頸瓶의 소비성격과 조형변천」, 『美術史學』 22, 2008.
- 김현우, 「조선시대 회곽묘의 계층성과 확산: 서울·경기지역 대규모 분묘군을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91, 2016.
- 도현철, 「高麗末期 士大夫의 四禮 認識」, 『역사교육』 65, 1998.
- 박정민, 「漢陽都城에서 출토된 조선 전기 墨書白瓷의 특징과 의미」, 『美術史學研究』 282, 2014.
- 박진훈, 「고려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 官人 가족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35, 2006.
- _____, 「고려시대 官人層의 火葬: 墓誌銘 자료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229,

2016.

- 박춘규, 「고고학으로 본 전북지역 조선시대 土壙墓」,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박형순, 「朝鮮時代 무덤양식」, 『錦江考古』 2, 2005.
- 송윤정, 「화성 가재리 유적 출토 조선전기 도기장군의 제작기법」, 『야외고고학』 15, 2012.
- 송진옥, 「朝鮮王室의 明器 기록」, 『史學志』 53, 2016.
- 申明鎬, 「조선시대 灰隔墓와 미라」, 『동북아문화연구』 13, 2007.
- 신승철, 「忠北地域 高麗~朝鮮初期 土壙墓 考察」, 공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심승규, 「경기(京畿)를 통해 본 서울의 정체성: 고려와 조선의 경기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8, 2015.
- 오영인, 「조선시대 분묘 內 매납 자기에 대한 一考: 한양 공동묘역 출토 한 벌의 부장품을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2, 2013.
- 이상균, 「여말선초 상·제례 변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편성」, 『한국민족문화』 44, 2012.
- 이석규, 「조선 전기 三年喪制의 확립과 民의 성장」, 『韓國史研究』 161, 2013.
- 李鍾玟, 「高麗 墳墓 出土 陶磁 研究: 소비방식의 관점에서」, 『湖西史學』 46, 2007.
- 이지현, 「朝鮮時代 明器의 연구: 白磁明器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희인, 「고려~조선시대 무덤의 전개양상」, 『고고학으로 본 조선시대 장송』, 제37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9.
- 장남원, 「조선시대 喪葬공예품의 의미와 구성: 서울·경기 지역 民墓埋納品을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24, 2010.
- _____, 「소비유적 출토 陶瓷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茶禮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2011.
- 장동우,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 과정: 동진東傳 판본版本 문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6, 2010.
- _____,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2013.

- 장지영, 「조선전기 한양 서교지역의 분묘 출토 陶磁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36, 2013.
- 전경숙, 「경기지역 고려 분묘 조성의 확대와 사후관」, 『한국중세사연구』 41, 2015.
- 전나나, 「조선 왕실 명기의 변천」, 『역사와 현실』 103, 2017.
- 정일영, 「조선시대 유교적 상장례 정착으로 보는 ‘유교화’ 과정: 연산군·중종대 상기(喪期)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0, 2017.
- 정의도, 「고고자료로 본 조선시대의 젓가락 연구」, 『文物研究』 29, 2016.
- 정춘택, 「朝鮮 前期 墳墓 出土 陶器의 樣式的 特徵과 編年 研究」,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최남미, 「15세기 粉靑沙器장군의 용도와 특징」, 『한국학연구』 57, 2016.
- 최순우, 「溫寧君墓出土의 粉靑沙器」, 『美術資料』 6, 1962.
- 崔在錫, 「朝鮮初期의 喪祭」, 『奎章閣』 7, 1983.
- 최호림, 「우리나라 明器에 관한 一考察」, 『동아시아 문화연구』 14, 1988.
- 한혜선, 「문헌기록을 통해 본 瓦器·陶器·甕器의 用例와 상호관계」, 『역사와 담론』 64, 2012.
- _____, 「高麗時代 陶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_____, 「고려 후기 분묘 출토 陶器의 지역적 차이와 그 배경」, 『한국중세사연구』 45, 2016.
- _____, 「羅末麗初 陶器扁球瓶의 연원과 자기로의 변안」, 『한국중세고고학』 1, 2017a.
- _____, 「한양도성 내 조선전기 문화층 출토 매납도기의 종류와 특징」, 『陶藝研究』 26, 2017b.
- 한희숙, 「조선전기 장례문화와 귀후서(歸厚署)」, 『朝鮮時代史學報』 31, 2004.
- 홍지윤, 「朝鮮時代 墳墓에 남겨진 喪葬節次-은평뉴타운 발굴자료를 중심으로」, 『중앙고고연구』 10, 2012.

Abstract

THE COEXISTENCE OF NEW AND OLD ELEMENTS SHOWN IN
THE GRAVE POTTERY OF GYEONGGI REG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N HYESUN (HAN, HYE SUN)

This thesis concretely examined the coexistence aspect of new and old elements, targeting the pottery excavated from graves of Gyeonggi region in the early Joseon Dynasty. In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e grave ruins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ratio of graves with pottery was low, and in most cases, one from the pottery was buried in each grave.

The grave pottery were divided into jar, bottle, Jang-gun, Myeong-gi, and others. Out of them, the types occupying the highest percentage were jars and bottles. The jars were divided into short-necked jar, handle short-necked jar, tall-but-narrow-at-the-bottom jar, and small jar; the short-necked jar was buried the most. The bottles were divided into trumpet-mouthed bottle, terrapin-shaped bottle, and small bottle. The trumpet-mouthed bottle occupied more than 90% out of bottles found in the graves. As the types preferred for the purpose of burial in the central region including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the short-necked jar and tall-but-narrow-at-the-bottom jar show that the tradition of Goryeo was still maintained. On the other hand, the handle short-necked jar with handles in different shapes, Jang-gun with

the body lying on its side, and the pottery Myeong-gi for grave produced in small size, are the items newly buried from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as the pottery Myeong-gi was very hard to find in other regions, it is an example showing that Gyeonggi region close to the capital Hanyang was faster to spread and apply the new ritual system, compared to other regions.

Even when the new dynasty is established, every system and culture cannot be changed at once because people in the space are the same regardless of the change of dynasty. At this time, it is so natural that the traditional elements that have been passed down, coexist with the new elements reflect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The pottery could be pointed out among grave goods of Gyeonggi-do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s a case concretely showing this look.

Key Words : Early Joseon Dynasty, Gyeonggi(京畿), Grave, Grave Goods, Myeong-gi(明器), Jang-gun